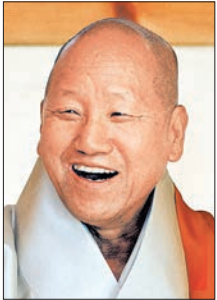


“인류존망 달린 중대사”

진제 중정예하, 출산 장려 위해
3자녀 100가구에 총 10억원 지원

진제 중정예하가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률을 올리기 위한 출산 장려운동에 나섰다. 중정예하는 지난 1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중학생 이하 나이대의 세 자녀를 둔 전국의 불자 31가구를 선정해 아이들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중정예하는 이 가정에 매년 100만원씩 10년간 지원한다. 100가구가 선정될 때까지 지급 대상자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이 운동은 중정예하와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진제선세계화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진제 중정예하

지난 1일 해운정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첫 장학금 지급식에는 장학금 수혜 대상 가족과 아이들이 참여해 기쁨을 함께 했다. 중정예하는 “지금 출산율이 계속 진행되면 국가 존립이 위태로워지며 100년이 지나지 않아 한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된다”며 “출산율저하 원인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정신가치관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중정예하는 “물질문명의 편리함에만 매몰되어 정신세계는 등한시한 결과 인간의 본성에서 멀어지고 극심한 경쟁 속에 놓이다 보니 취업 문제, 결혼과 출산 양육의 문제 등이 발생했다”며 “결혼한 부부에게 출산이란 인류의 근원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로 우리가 부모님의 몸을 빌려 태어났기에 인류의 유지를 위해서는 개인의 이기적 자기애를 벗어나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의무이고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정예하는 ‘인성교육 오계(五戒)’의 가르침을 내렸다. ‘첫째,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둘째, 부모와 조상님께 효도(孝道) 합시다. 셋째, 친구와 이웃을 사귀어 있어서 서로 신의와 사랑으로 합시다. 넷째, 맡은 바 일에 있어 성실과 정성을 다 합시다. 다섯째, 대자비심을 가지고 못 생명을 존중합시다.’

중정예하는 끝으로 “출산율저하 문제는 우리나라의 존망을 걱정할 중대한 일”이라며 “세 자녀 이상 두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社告

부산지사장 모집

- 활동지역: 부산지역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경력증명서, 조계종 신도증 사본, 해당지역 조계종사할 주지 스님 추천서
- 접수마감: 2016년 9월 7일(수)
- 전형절차: 1차-서류, 2차-면접 / 대상자 개별통지
- 제출처: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5층 불교신문사 (건지동, 대한불교조계종전법회관)
- 문의: (02)730-4489(담당: 나재형)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0년만에 돌아오는 송광사 오불도 (五佛圖)

도난 뒤 미국인에 구매돼 포틀랜드박물관에 기탁돼 있던 조계종림 송광사 오불도(五佛圖)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 미국 포틀랜드박물관(관장 브라이언 J.페리소)은 지난 1일 “불화를 구매했던 로버트 마티엘리(Robert Mattielli, 86)씨가 지난 2014년 포틀랜드박물관에 기탁한 오불도를 송광사로 반환하는데 동의했다”며 “2017년 상반기 중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환에 앞서 포틀랜드박물관에서는 3일부터 오는 12월4일까지 특별전이 개최되며, 12월3일에는 심포지엄도 열린다. 또 송광사는 2017년 오불도 봉안식에 마티엘리 부부와 포틀랜드박물관 관계자를 초청해 감사를 표할 계획이다.

오불도는 송광사 불조전에 봉안된 오십삼불도(五十三佛圖) 가운데 하나다. 십삼불도 2폭, 구불도 2폭, 칠불도 1폭, 오불도 2폭 등 7폭으로 이뤄졌는데, 이중 오불도 2폭이 도난당했다.

불화를 기탁한 마티엘리 씨는 1960년대부터 30년 간 서울에서 화가, 조각가, 도예가, 미술교사를 지냈다.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고미술품을 수집했는데, 오불도는 1970년 초 서울 안국동의 한 골동품 가게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목가구 서랍장에 구겨져 있던 불화를 구매해 수리하고, 1985

마티엘리씨 1970년 초 구입
美 포틀랜드박물관에 기탁
문화재청 조사과정서 확인
“내년 상반기 돌아올 예정”

동약당재인선사 진영에 이어
종단-문화재청 합동 환수 ‘쾌거’



송광사 오불도.

년 미국으로 돌아갈 때 가져가 보관하다 지난 2014년 포틀랜드박물관에 기탁했다.

국내에 오불도가 알려진 것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난 2014년 7월 포틀랜드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현황조사를 거쳐 이듬해 자료조사를 하면서다. 종단은 문화재청과 2015년 7월 우호적 해결을 합의하고, 협상권한을 문화재청에 위탁했다. 문화재청은 포틀랜드박물관에 오불도가 도난문화재란 것을 전하고, 송광사로 돌아갈 수 있게 마티엘리 부부를 설득해줄 것을 부탁했다. 포틀랜드박물관 또한 마티엘리 부부에게 사실을 전했고, 부부 역시 송광사 반환에 동의했다.

종단은 “마티엘리 부부의 한국문화재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훼손된 채 발견됐던 오불도는 지금까지 남아 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마티엘리 부부와 포틀랜드박물관 관계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지난해 3월 미국 경매에 출품된 도난불화인 선암사 동약당재인대선사 진영을 문화재청과 함께 환수한 이후 두번째 성공사례를 기록한 종단은 “앞으로도 국외 소재 도난불교문화재 환수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2017년 상반기까지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증보하고 영문판으로 발간, 미국 프랑스 180여 개국과 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박물관협의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현경 기자 eonaido@ibulgyo.com



일광스님의
사랑하기 좋은날

진호의 생일상

“스님, 벌써 우리 아들 생일이 다가오네요. 내일 복지관으로 가서 빌게요.” 더위에 지쳐 마음마저 축축 처지는 어느 한낮, 휴대전화 문자가 올랐다. 달력을 보니 어느새 진호의 2주기 생일이다. 갓 스무살이 넘은 진호는 어느날 아침 회사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선 뒷모습이 생전의 마지막이었다. 떡고 사느라 바빠 1년에 한번 초파일 연등 달려고 절에 오는 것이 전부였던 진호의 부모님은 아들 위패를 모시고 49재를 지내면서 그 먼 길을 매일같이 달려와 부처님께 지극정성 매달리며 기도를 올렸다. 그렇게 칠칠재가 끝나고 어색하던 합장도 자연스럽게 어눌하던 발원문도 곧잘 따라하면서 불법(佛法)을 익혀나갔다.

하지만 아들의 기일이니 생일만 다가오면 또다시 눈물바람이다. 그래서 제안했다. 재모시는 경비로 복지관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자고. 진호의 생일을 눈물짓는 날이 아닌 복짓는 날로 만들자는 제안을 부모님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진호어머니는 어떤 메뉴로 생일상을 차릴지 의논하러 복지관에 오겠다는 소식을 보낸 것이다. 생일날 아침 일찍 진호네 가족들과 절에서 간단히 재(齋)를 모시고 복지관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물론 이모들까지 합세하여 식재료를 다듬고 음식준비를 하여 맛있는 공양상이 차려졌다.

윤기 가득한 찰밥과 들깨미역국 그리고 궁중잡채와 노릇하게 구운 조기를 식판에 정성껏 담아내는 진호네 가족들과 그들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위로하며 감사의 인사를 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어떤 거룩한 재(齋)의식보다 송고해 보였다. 그 날 늦은 오후 복지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내 손을 잡고 나직하게 말하셨다. “스님, 진호가 내 손주같이서 하루종일 염주 돌리며 ‘나무야미타들 극락왕생’만 발원했네요.” 오늘 베풀어진 만발공양은 음식을 내신 분과 받는 분 그리고 배플어지는 공양이 다함께 거룩한 삼륜정정(三輪淨淨)의 공양이다. 아들을 여인 슬픔과 아픔을 하얀 꽃타래로 승화시켜 중생계에 회향(廻向)하는 그 애뜻한 마음에 나도 맑은 향을 올린다. 거창 죽림정사

“초심 서원”

주호영 20대 국회 신임 정각회장 취임법회가 지난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국회에 등원하던 첫날의 초심을 계속 지켜겠다는 서원으로 임하면,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자로서 손색이 없는 참다운 불자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사진은 정각회원들이 발원문을 낭독하는 모습.

▶관련기사 2면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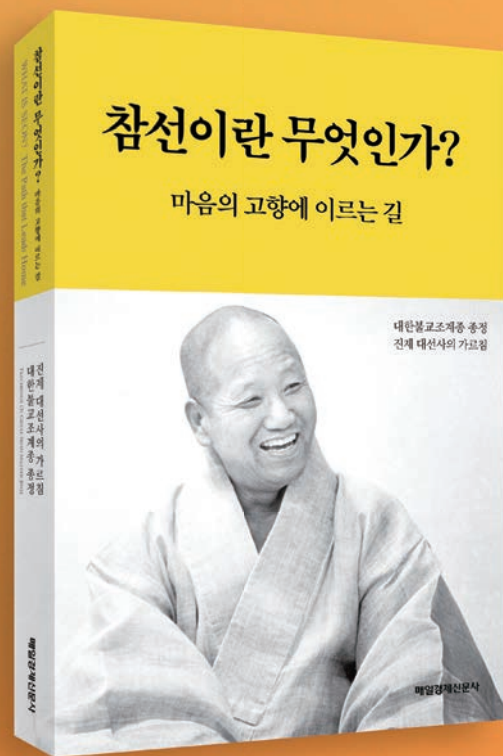
- ARS모연: 060-700-1027
- 문자모연: #2540-1027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창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농협 301-0160-9713-71 (계좌번호2주변우체국)
- 모연문의: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중정 진제대선사가 한글과 영문으로 전하는 삶의 지혜와 참된 행복의 메시지

“사람들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여위면 털이 길어진다.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모든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밝히는 참선수행을 합시다.”

“이 책은 오늘 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소중한 양식을 부담 없이 얻을 양서라 아니 할 수 없다.” -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진제대선사는 한국대선사로부터 부처님법을 인가받아 경허-혜월-운봉-한국대선사로 전해 내려온 정통법맥을 이음. 석가여래부촉법 제79대법손.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중정,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